

현장과 시각

‘불가능한 꿈’을 꾸자



김미은

문화생활부 차장

지난 4월 취재를 위해 광주 씨다아트홀에서 공연 중인 ‘마술가게’를 보러 갔다. 난감한 상황을 맞았다. 조금 늦게 도착한 기자에게 연출자가 방금 공연을 취소했다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이다.

이날 극장을 찾은 사람은 기자 뿐이었고, 전화문의했던 이어게는 다음날 관람해줄 것을 부탁했다고 한다.

유명 배우들이 ‘관객이 없어 공연을 취소한 적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추억’처럼 말하는 기사를 본 적은 있지만 이런 일을 직접 겪자 당황스러웠다.

정성껏 분장하고 관객 맞을 준비를 했던 배우들은 얼마나 난감할 것인가. 배우와 연출자는 오히려 담담한 듯 했지만(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기자는 민망하고 괜히 미안했다. 결국 이날은 전날 공연에서 지적됐던 상황들을 조율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쳤다.

그리고 지난 18일, 마지막 공연 후 종파티가 있었다. 일주일 전부터는 입소문이 나면서 관객이 꽤 많이 들었다고 한다. 객석이 뿔뿔하게 채워지던 날, 조영실에서 작품을 체크하던 연출자는 울컥 눈물이 날 뻔했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가 생기더라는 말도 덧붙였다.

어쩌면 시작부터가 무리한 도전이었는지도 모른다. 자비를 들어 소극장을 오픈한 것도, ‘연극향우’ 인구가 반한데도 인지도가 전혀 없는 극장에서 35일간 공연을 진행하기로 한 것도.

하지만 ‘일회성비 하지 않고 길게 보고 가겠다’ ‘힘들다는 것 알고 시작한 일이다. 좌절하지 않겠다’며 서로를 격려하고 덕담을 나누는 이들에게선 또 다른 희망이 보였다.

최근 지방 뮤지컬 사상 처음으로 대학로에 진출한 대구 뮤지컬 ‘만화방 미숙이’가 화제를 모았다. 수많은 우려를 뒤로 하고 서울로 떠난 ‘만화방 미숙이’는 4천명을 동원, 성공을 거뒀고 3개월간 다시 장기공연에 들어간다.

사실, 시립예술단을 제외하고는 지역 단체들이 자체기획으로 서울 무대에 서는 건 어렵다. 하지만 ‘만화방 미숙이’나 2년간 6만명을 동원한 정주산(産) 1인극 ‘염장이 유씨’, 부산의 솔로페라단의 사레처럼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체 계바라의 말 중에 이런 게 있다.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 속에 불가능한 꿈을 꾸자.’ 지역 연극인들도 ‘불가능한 꿈’을 꿔보면 좋겠다. 힘든 지역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겠지만 광주 연극관을 부흥시키겠다는 꿈을 놓지 않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광주연극’이라는 브랜드로 서울 무대에 서고, ‘난타’와 ‘점프’가 성공의 발판을 마련했던 예던버퍼페스티벌에도 진출하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고, 도전을 계속할 때 성공 신화는 찾아올지도 모른다. /mekim@kwangju.co.kr

18대 국회 개원 의미와 과제

과반의석 與 독주 우려 경제·민생현안 챙겨야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탄핵 바람 속에서 출범한 17대 국회가 29일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얼굴의 18대 국회가 오는 30일 드디어 문을 연다.

이번 18대 국회는 행정부와 지방정부에 이어 의회권력까지 보수진영이 차지한 상황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여당이 과반의석(153석)을 토대로 각종 입법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 정부·여당이 국정운영 철학을 힘있게 구현해낼 수 있는 의회환경이 조성된 상황이다. 하지만 독주하는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하고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만 할 경우 국민들의 반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국민은 이번 국회에서는 이념이나 정정보다는 민생과 국정현안에 실질적인 답을 제시하는 국회로 거듭나주기를 바라고 있다.

17대 국회의 경우 초반부터 4대 개혁법안을 둘러싼 소모적인 이념대립과 정쟁, 몸싸움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 여당에는 ‘무능당’, 야당에는 ‘동니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생과 경제살리기는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

따라서 18대 국회는 당리당략과 정치적 이해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양극화’와 ‘저성장’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일방주의적 정책에 대해 무조건 협조할 수는 없지만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조하는 전향적 자세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맞물려 ‘실종된 정치력’의 회복도 18대 국회에 던져진 중차대한 과제다. 집권여당은 힘의 우위만을 강조하다가 일반 통행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야권을 상대로 정치력을 발휘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야권도 장외투쟁과 같은 극단적 대응방식을 피하고 대안정치체력으로서 정책적 해법을 제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지적이다.

정국의 최대 당면과제로 떠오른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논란과 한미 FTA 비준안 처리는 18대 국회의 ‘정치력’을 확인해볼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의 질을 높이는 것도 18대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다. 17대 국회의 입법활동 성적표는 그야말로 ‘외화내빈’으로 지적된다. 의원입법 발의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질적으로는 오히려 저하됐다는 게 국회 스스로의 평가다.

18대 국회에서 다뤄질 핵심 사안 중 하나는 ‘개헌’이다. 이는 87년 체제의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정치권 전체가 풀어야 할 화두이자 17대 국회가 남기고 간 ‘숙제’이기도 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진 낙석 사이로 대규모 지진이 강타한 쓰촨성 주민들이 27일 베이촨 지역으로 가기 위해 낙석 지대를 조심스럽게 빠져 나가고 있다. 중국은 쓰촨성 일대 연색호가 붕괴할 것에 대비, 15만명의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연합뉴스

“한국도 대규모 재해 가능성 높아”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최근 중국 쓰촨성 대지진과 미얀마 사이클론 등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대규모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발표한 ‘세계 재난 속의 한국-한반도 재난 안전지대인가’ 보고서에서 “1916년부터 2006년까지 연도별 재해 피해액을 분석한 결과 2001~2006년이 모두 상위 10위 이내에 포함됐다”며 “이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강

타했던 2002년이 6조9천290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했고 태풍 ‘매미’ 등으로 2003년에 4조8천865억원의 피해가 났다. 2006년(1조9천430억원)과 2001년(1조4천190억원), 2004년(1조2천853억원), 2005년(1조737억원)도 모두 피해액이 10위권에 들었다.

다만 인명 피해에서는 2000년 이후에 모두 10위권 밖에 머물렀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지진의 경우에도 연평균 발생 횟수가 2001~2007년이 43회로 1978~2000년의 20회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와 함께 그동안 겨울철에만 발생했던 조류인플루엔자(AI)가 올 들어 봄철에 발생하는 것도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재해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나 폭설 등에 의한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연구소는 “재보험사인 뮌헨리의 자료를 보면 자연재해 위험도에서 서울·인천이 세계 50개 대도시 중 14위를 기록했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방재 능력이 취약하다는 뜻으로 내진 설계 등 건축 규제를 강화하고 자연재해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대지진으로 약 10만명의 사상자가 예상되면서 올해 전세계 재해 피해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연구소는 내다봤다. /연합뉴스

피터 로 주한 호주대사 광주·전남 방문

FTA 체결 앞두고 농민 등 만나 여론 수렴

피터 로(Peter Roew · 57) 주한 호주대사가 28일부터 이틀 동안 광주·전남지역을 방문, 농업 관련 전문가와 지역 정치인, 농업현장을 찾는 등 한국-호주 관계발전



에 대한 지역민들의 다양한 여론수렴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피터 로 대사의 이번 방문은 앞으로 한국-호주 FTA 체결을 앞두고 최대 쌀 생산 지역인 광주·전남지역 농민과 지역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 우호적인 한·호 관계 발전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

피터 로 주한 호주대사는 이날 오전 전북지역을 방문한 뒤, 오후에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광주시연합회 정성도 회장과 만나 광주전남 농업의 현실과 애로점

등을 청취하고 호주의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재균 통합민주당 의원 당선자와 운장현 광주YMCA이 사장 등을 만나 지역의 현실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피터 로 대사는 29일 오전 조선대를 방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북아시아의 호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할 뒤, 조선대 교수들과 오찬을 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에는 박준영 전남지사를 만나 전남지역의 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채희중기자 chae@

“李 대통령 6·15, 10·4선언 수용해야”

임동원 前장관 촉구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28일 6·15 공동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천선언”이며 10·4남북정상선언은 “남북관계 확대·발전을 위한 구체적 사업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두 선언의 수용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남북관계의 원상회복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세종재단 이사장인 임 전 장관은 이날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주최 조찬 간담회에서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는 “탈냉전 시대를 맞아 새로운 남북관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정립한 강령적 성격을 띤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 합의서와 두 선언은 연속선상에서 남북관계의 발전과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남북문제 해결의 길은 이미 열려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실천이 바로 그것이다”고 밝힌 사실을 상기시키고, “정신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바로 실천에 있다”고 강조했다.

임 전 장관은 특히 이 대통령이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남북 정상은 합의한 것이 있지만”이라고 한 대목을 가리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는 듯한 이 대목에 북한이 반발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일인 납치문제 조치 촉구

힐-김계관 베이징 회동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28일 북한측 파견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2차 회동을 갖고 일인 납치문제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후 1시간여 동안 1차 회동을 가진 두 사람은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주중 미국대사관에서 2차 회동에 들어갔다.

힐 차관보는 최근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일 3국 수석대표 회동에서 일본측이 제기한 일인 납치문제를 포함한 ‘관심과 우려사항’을 김계관 부상에 전달하고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북한측도 공감함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회동이 끝난 이후 일인 납치문제에 대한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Yulim Jeong (유림정공) featuring construction projects and services. Text includes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A/S까지 최고의 품질로 보답드리겠습니다.' and '유림정공(주)'. Contact info: 011-276-2338.

Advertisement for Anma's (안마의자) featuring a massage chair. Text includes '호남 최대!! 안마의자·홈사우나 전문매장' and 'OPEN'. Contact info: 011-652-59.